

작품 내용

제 목	작자미상이란 사람
내 용	세상에 주인 없는 글이 있을까.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작자미상’, 지은이로 자주 등장했던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나는 작자미상이란 사람이 시조를 참 많이도 썼구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어가 지은 사람을 모른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되었다. 수백 년이 넘는 세월, 글은 전해졌지만, 주인은 전해지지 않은 이 ‘작자미상’의 글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았다. 내겐 그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다가왔다. 수십, 수백 자의 글은 그대로 전해져왔지만, 이름 두세 글자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창작의 소중함을 모르던 시대였던 걸까? 혹은 저작권이란 보호가 없던 건 아닐까? 나의 직업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일이다. 열차를 뜯고, 고치고, 조여서 다시 선로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우리의 일에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다. 그걸 ‘작업절차서’라고 부른다. 전산에 들어가 항목을 누르면 작업에 대한 모든 순서가 뜬다. 내용에는 오탈자도 없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반듯하다. 우연히 캐비닛 아래 칸에서 오래된 절차서를 발견했다. 몇 십년 전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다. 그 수기 본은 읽기 전에 먼저 만져졌다. 지운 자리, 그 위에 덧쓴 획, 다시 두 줄을 그어 지운 흔적, 어떤 항목은 세 번쯤 고쳐졌고, 어떤 항목은 종이가 얇아질 만큼 문질러졌다. 볼펜이 눌린 자리는 뒷장마저 도드라져 있었다. 한 사람이 쓴 문서가 아니었다. 획이 달랐다. 어떤 줄은 힘주어 눌러 썼고, 어떤 줄은 흘러 썼다. 같은 항목에도 다른 손이 몇 번이나 다녀갔단 뜻이다. 고치고, 또 고치고, 지운 자리 위에 다시 쓴 자국. 그런데 자국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이름은 없었다. 이십년 만에 그 말이 떠올랐다. ‘작자미상’. 나는 그 문서로 일을 배우지 않았다. 내가 배운 것은 컴퓨터 화면 속 반듯한 문장들이다. 그런데 이 수기를 보니 그 문장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한 항목은 대개 서너 줄이다. 읽는데 삼 초쯤 걸린다. 그 삼 초 뒤에 무엇이 접혀 있는지 알게 되기까지 몇 해가 걸렸다. 어느 부품을 어느 순서로 어느 방향에서 다루라는 그 한 줄은 누가 책상에 앉아서 설계한 것이 아니다. 같은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이 썼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경험한 것이다. 이 순서로 하면 손이 낫다는 것을 누가 먼저 겪었다. 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나사가 상한다는 것을 또 누가 겪었다. 겪은 사람이 말했고, 그 말이 반복되어 문장이 되었고, 문장이 종이에 올라갔다. 어떤 줄은 사람이 다치고 나서 굵어졌다. 한 줄 뒤에 수십 년이 접혀 있었다. 이런 문서가 내가 일하는 정비고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전임자가 남긴 파일이 있을 것이고,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는 서식, 왜 칸이 거기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표. 우리는 물려받아 쓰고, 조금 고치고,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은 붙지 않는다. 법전을 보면 조문마다 각주가 달려있다. 개정 2011.5.19. 신설 2020.7.31..

어느 문장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법은 제 몸에 적어둔다. 오래된 법일수록 각주가 뻑뻑하다. 나는 그 뻑뻑함이 좋았다. 법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 항목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인지 그 오래된 절차서를 발견했을 때 무척이나 기뻐다. 내가 배우는 이 기술이 누군가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많은 손을 거치고 거친 정교하고도 명확한 것이란 생각에. 작자미상의 그 시들이 내게 왜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왔는지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인공지능 도입 과제를 검토했다. 현장 문서를 기계에 학습시켜 필요한 대목을 바로 찾아 쓰자는 제안이 여럿 올라왔다. 기술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 끝에 누군가 물었다. 그거 저작권 문제 없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이 문서들의 주인을 찾아보았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생각이나 방법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순서로 풀어야 손이 안 긴다는 얇, 수백 명의 손끝을 지나며 확인된 그 판단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없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값나가는 것이 제도의 바깥에 있었다.

그럼 문장은 어떤가 싶었다. 문장은 표현이니까. 누가 쓰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절차서가 꼭 그렇다. 두 번을 먼저 잠근다는 말을 달리 쓸 방법이 없다. 아니, 달리 쓰면 안 된다.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절차서는 그 자체로 사고다.

좋은 절차서일수록 다르게 쓸 수 없다. 다르게 쓸 수 없을수록 저작권은 얇아진다. 정확할수록 권리가 줄어든다. 남은 것도 개인의 것은 아니었다. 회사의 이름으로 퍼낸 업무상 문서는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에 책임지는 쪽이 문서를 쥐어야 고쳐지고 배포된다.

그러니 이렇게 된다. 가장 많은 사람이 만든 문서인데, 저작자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찾아보는 동안 이런 말도 알게 되었다. 고아저작물. 주인을 찾으려 애썼는데도 끝내 찾지 못한 저작물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법에도 작자미상이 있었던 셈이다.

전산화는 좋은 일이었다. 찾기 쉽고, 고치기 쉽고, 누구에게나 같은 문장이 간다. 종이로 쓴 문서들은 지저분한 흔적이 많았고, 손으로 쓴 것은 읽기조차 어려웠다. 우리는 결국 내용만 옮기면서 자국을 두고 왔다.

요즘 나는 인공지능을 볼 때 그 일을 다시 생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랐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을까. 누군가 쓴 문장, 누군가 찍은 사진, 누군가 밤을 새워 고친 문단. 그 하나하나가 원래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들이 섞인다. 섞이면 출처가 사라진다. 남은 것은 매끄럽고 빠르고 쓸모 있다.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난 셈이다.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길 때 자국이 지워졌고, 화면에서 기계로 옮길 때 출처가 지워졌다. 편해질 때마다 무언가를 한 겹씩 벗겨 나갔다.

우리가 쓰는 것들 뒤에는 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은 저작물이 되어 이름을 얻었고, 어떤 것은 끝내 얻지 못했다. 기계가 삼킨 문장 중에는 분명히 주인

이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고 썼다.

수기본에는 적어도 자국이 있었다. 이름은 없어도 손이 있었다는 증거는 남았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문장에는 그것이 없다. 고쳐진 자리도, 망설인 흔적도 없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반듯하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름이 있었다는 그 흔적이다.

작자미상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남지 않았다는 흔적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작자미상이란 자리조차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말이다.

수기본은 아직 캐비닛에 있다. 내용은 이미 전산에 다 들어가 있으니 둘이 유가 없다. 읽으려고 두는 것이 아니다. 가끔 펼쳐서, 지운 자리에 손을 얹는다.